

주간 해외 에너지 정책 동향

Issue 20 / 2007.7.18

□ Total사, 러시아의 가스전 공동개발 참여

- 러시아 가스프롬은 자국 내 천연가스자원의 해외 개방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면을 보여 왔으나 최근 러시아 연안 대규모 Shtokman 가스전을 프랑스의 Total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음.
- 종래 가스프롬은 해외 주요 석유회사들의 자국내 가스전 개발참여를 매장량 7~9천만 톤 정도의 규모에, 소지분만을 참여하는 형태로 제한해 왔음.
- 가스프롬과 Total은 Shtokman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설계와 재정, 건설, 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의 합작회사(가스프롬 75%, Total 25%)설립을 합의하였는데, 가스프롬의 지분 중 24%까지 타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.
- 동 가스전 개발에는 첨단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데, 동 회사는 1단계 가스전개발을 위한 생산 및 수송인프라를 25년간 운영한 후, Total사의 지분은 가스프롬에 인계하는 것으로 합의함.
- 천연가스 생산은 연간 약 2천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, PNG는 '13년부터 LNG는 '14년부터 공급할 계획임.
- 천연가스의 판매권은 가스프롬이 갖게 되며, 금년 7월부터 개발에 따른 활동을 시작함.

(Energy Business, 2007.7.13), (Financial Times, 2007.7.10)

NEWS

- Total사, 러시아의 대규모 가스전 공동개발 참여
- 일본,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범위 논의
- 고유가의 원인으로 정제설비용량, 정치적으로인, 투기 등 언급
- Kazatomprom, Westinghouse 지분참여
- 투르크메니스탄,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확대
- 브라질의 에너지부문 확대정책
- Petro-Canada사의 오일샌드 프로젝트 투자 계획
- 독일, 원자력 유지정책으로 선회
- 알제리, 스페인과 이탈리아 통해 대 EU 천연가스 수출
- UAE, 돌핀 프로젝트 첫 가동
- 카타르, 쉘과 가스부문 협정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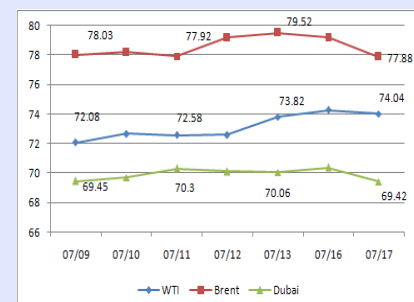
ANALYSIS

- 미국, 외국자본의 자국 에너지기업 인수 규제 강화
-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 측 지선 '08년 건설 개시 예정

REPORT

-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

ASIA & AMERICA

□ 일본,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범위 논의

- 경제산업성(METI) 소속 전기사업분과회 제도개혁 실무그룹이 6월 28일에 이어 7월 11일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범위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함.
 - 기대한 만큼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신규참가가 부진하여 현재까지 신규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%에 머무르고 있음.
 - 수요자의 선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현시점에서 소매시장의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'바람직하지 않다'고 지적함.
- 전기사업분과회는 경쟁환경을 개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임.
 - 구체적인 기간은 현행제도 수정 논의를 참고하여 분과회의 최종 단계에서 제시될 전망이며, 실무그룹이 종합한 검토결과는 30일에 열리는 분과회에 보고될 예정임.
 - 기존 전력회사의 독점적인 성향으로 인해 전력자유화의 흐름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으며, 현재는 탁송요금과 전력거래소의 활성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.

(日本電氣新聞, 2007.7.12)

□ Kazatomprom, Westinghouse 지분참여

- 카자흐스탄 국영 우라늄 공급기업인 Kazatomprom은 Toshiba와 Westinghouse의 지분 10% 매입을 논의 중임.
 - Toshiba는 지난 4월 영국 BNFL로부터 Westinghouse를 매입하였음 (Toshiba 70%, Shaw Group 20%, Ishikawajima-Hariwa Heavy Industries 3%).



- Toshiba는 Westinghouse 매입 당시 연간 \$20억의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현재 매출액은 \$7억 5천만에 불과하여 이번 계약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함.
- Toshiba-Kazatomprom간의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세계 제2대 우라늄 자원국인 카자흐스탄은 Westinghouse의 안정적 원료 공급처가 될 것임.

(WNN, 2007.7.10)

□ 투르크메니스탄,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확대

- 투르크메니스탄은 대 러시아 천연가스 연간 수출량을 50%이상 증대시키겠다고 발표하였음.
-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투르크멘-카자흐스탄 간 합의된 카스피 해 연안의 가스관 현대화 결정에 뒤이은 것임.
- 구소련 시절 건설된 카스피 해 연안 가스관 현대화 작업이 완료되면, 투르크멘의 대 러시아 수출량은 현재의 500억 m³에서 800억 m³로 증가하게 됨.
- 이로써 유럽 및 기타 가스 수입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.
-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5대 천연가스 자원보유국으로, 러시아와 미국은 이 지역을 상대로 천연가스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벌여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게 되었음.
- 그러나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카스피 해 횡단 가스관 건설사업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, 러시아-미국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.

(AP, 2007.7.11)

□ 브라질의 에너지부문 확대정책

- 최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으며, 이중 원자력과 바이오연료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.



○ 원자력 부문

-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\$5억2,600만 투자와 함께, 우라늄을 이용한 전력 생산 및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함.
※ 브라질은 세계 6위의 우라늄 매장 국가임.
- 현재 브라질의 원자력 부문은 국가 예산 부족으로 10년가량 뒤쳐진 상태이나,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6년 내 모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함.
- Angra-III 원자력 발전소가 '13년에 완공될 예정이며, '30년까지 최대 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.
※ 브라질은 전력의 85%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, '20년에는 수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.

○ 바이오연료 부문

- 세계 바이오연료의 50%를 생산하고 있으며, 에탄올 시장에서도 지난해 전 세계에 39억 ℓ를 수출하여 시장점유율 70%를 기록함.
- 대 유럽 에탄올 수출 활성화와 함께 전 세계에 브라질산 에탄올의 시장 확대를 꾀함.
- 미국과 브라질의 에너지 당국 관계자들은 '미주(美洲)의 혁신과 경쟁력'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에탄올 대량생산 방침을 확인하며, 에탄올이 식량 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.

(EFE, 2007.7.11)

□ Petro-Canada社の 오일샌드 프로젝트 투자계획

- 캐나다 Petro-Canada社와 제휴사들은 앨버타 북부지역의 오일샌드 프로젝트(Fort Hills 프로젝트)에 약 \$251억 투자를 계획임.
- Fort Hills 프로젝트는 '12년 2/4분기 생산을 목표로, '14년에는 28만 b/d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.
- 프로젝트 투자비용은 첫 번째 단계에서 \$135억이 소요되어 '12년 2/4분기까지 합성 원유 14만b/d를 생산할 것이며, 두 번째 단계에서는 \$116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


- Fort Hills 프로젝트의 지분구성은 Petro-Canada사가 55%, 캘거리의 UTS는 30%, 세계 1위의 아연 광산업체인 벤쿠버의 Teck Cominco가 나머지 15%를 보유함.
- 오일샌드 프로젝트는 고유가와 재래식 유전 개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음.
- 캐나다석유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캐나다 오일샌드는 1,750억 배럴의 석유 가채매장량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-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,590억 배럴 다음으로 많은 양에 해당되지만, 정제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타르류의 역청을 합성원유로 공정 처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함.

(Bloomberg, 2007.6.30)



EUROPE, MIDDLE EAST & AFRICA

□ 고유가의 원인으로 정제설비용량, 정치적요인, 투기 등 언급

- OPEC사무총장 엘-바드리는 현재 고유가의 원인은 원유공급부족이 아닌 미국 내 정제시설 문제로 인한 정제설비용량 부족과 정치적요인, 선물시장에서의 투기 때문이라고 주장함.
- 현재 원유 재고는 충분하고 과거 5년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임.
- OPEC이 원유생산을 늘린다 해도 정제설비용량 부족으로 석유제품의 증산으로는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함.
- OPEC은 원유 공급부족으로 유가가 높아진다면,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.

(Platts, 2007.7.11)

□ 독일, 원자력 유지정책으로 선회

- 독일 메르켈 총리는 '20년까지 17개의 원전을 폐쇄하도록 하는 정책을 폐지하고,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- 이번 결정은 원전폐쇄 정책이 독일의 이산화탄소 감축정책과 배치되며, 원자력 없이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에 의거한 것임.
- EU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'20년까지 20%인데 반해, 독일정부는 자국 목표치를 40%로 제시한바 있음.
- 이로써 독일은 주변 유럽국가의 원자력 발전확산 추세에 동참하게 되었음.
- 영국 및 핀란드도 최근 원자력사용 확대계획을 표명하였고, EU 신생가입국인 동유럽 국가들도 구소련 시절 설치된 원자로를 신규 원자로로 교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.
- EU에서는 독일과 스웨덴, 벨기에가 원전폐지 정책을 고수해 왔음.



(Telegraph, 2007.7.8)

□ 알제리, 스페인과 이탈리아 통해 대 EU 천연가스 수출

- EU 집행위원회는 알제리의 대 EU 천연가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천연가스 수입제한 법규를 삭제하기로 함.
 - 알제리 국영기업 소나트라의 이번 대 EU 천연가스 공급은 스페인의 Gas Natural과 Iberdrola, 이탈리아의 Eni와 Enel, Edison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.
 - 소나트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유럽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임.
- 알제리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대 유럽 천연가스 수출량을 현재 700억 m³에서 '11년 950억 m³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며, 스페인에 건설될 연간 80억 m³급 Medgaz 가스관이 주 수송로가 될 것이라고 함.
 - ※ Medgaz는 스페인과 알제리를 연결하는 두 번째 가스관으로 약 9억 유로가 투자되어 '09년에 완공될 예정임.
- EU의 '10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5,360억 m³에 이를 전망이다
- 현 스페인의 천연가스 소비의 99%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그 중 알제리로부터의 수입이 44%를 차지하고 있음.

(EFE, 2007.7.12)

□ UAE, 돌핀 프로젝트 첫 가동

- 걸프협력기구(GCC) 국가 간 경제,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거대 전략적 프로젝트중 하나인 돌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타르는 일일 5,700만 m³의 천연가스 수출을 시작함.
 - 동 프로젝트는 아랍의 협력프로젝트로서 UAE~오만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GCC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는 첫 프로젝트임.
 -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도시에서 아부다비의 타월라 지역까지의 프로젝트로서 총 \$35억이 투입되었으며, 가스관은 48인치에 길이 364km임.



- 돌핀 프로젝트는 '01년 맺어진 협정으로 카타르 북부 가스유전개발과 해저파이프라인을 통해 라스라판-UAE로의 가스수송을 포함하고 있음.
- 돌핀 에너지사 주도의 이 사업은 오만으로 일일 6백만 m³, 나머지 5,100만 m³의 가스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25년간 공급될 예정임.
 - ※ 돌핀 에너지사의 지분은 아부다비의 국영회사 무바달라 51%, 토탈과 엑시덴탈이 각각 24.5%를 소유하고 있음.
- 한편, 동 프로젝트는 사우디와 UAE간의 국경분쟁을 야기시켰으나, 토탈과 엑시덴탈은 해저파이프라인 경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실행 자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(Al-Jazeera, 2007.7.10), (CNN-Arabic, 2007.7.11), (KUNA, 2007.7.12)

□ 카타르, 셸과 가스부문 협정체결

-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와 Shell은 11일 카타르 액화가스회사 설립을 발표함.
 - 카타르가 70%, Shell이 30%의 지분을 가지는 공동회사로 \$80억이 투자될 것임.
- '05년 카타르가스-4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의 시행과 건설 및 장비 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, Shell은 동 프로젝트의 모든 생산을 매입한다는 협정을 체결함.
 - 카타르 북부 유전지대의 카타르가스-4 프로젝트는 일일 4,000만 m³의 천연가스와 일일 24,000 배럴의 LPG, 일일 46,000 배럴의 콘덴세이트 가스를 생산함.
 - 또한 매년 780만 톤의 LNG 생산설비와 수송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.
 - 카타르가스-4 프로젝트는 '10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해 미국 가스시장을 주목표로 LNG 판매가 이루어 질 것임.

(Al-Jazeera, 2007.7.11), (www.argaam.com, 2007.7.11)



1. 미국, 외국자본의 자국 에너지기업 인수 규제강화

□ 개요

- 미국 상원은 6월 29일 외국기업의 미국 석유, 전력 등 에너지관련 기업 인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.

□ 세부내용

- 법안의 주요내용
 -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(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, CFIUS)의 구조 및 기능의 개정을 다루고 있음.
 - CFIUS는 '75년 설립되었으며, 미국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회사의 인수 행위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심사함.
- CFIUS의 주요 활동사항
 - '86년 일본 후지쓰社가 미국 반도체회사인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려 하자, CFIUS는 '외국인이 미국기업의 M&A 또는 실질적인 지배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, 대통령이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'는 내용의 엑슨-플로리오(Exon-Florio) 규정을 '88년 제정함.
 - '05년 중국 해양석유총공사(CNOOC)가 미국 3위의 석유회사인 유노칼의 인수를 시도하자 미국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CFIUS가 개입하여 해당 기업의 인수를 무산시킴.
- 개정법안의 배경
 - '06년 2월 UAE의 국영회사 두바이포트월드(DPW)가 뉴욕항 등 미국내 6개 항만 운영권 계약을 성사시키자 CFIUS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.
 - ※ 미국 항만 안보위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DPW는 항만 운영권 인수를 포기함.
- CFIUS의 기능강화



- 금번 개정 법안을 통해 에너지부 장관이 CFIUS 위원회에 포함될 전망이다.
- 만약 이같은 조치가 미리 이루어졌다면, '05년 CNOOC의 유노칼 인수는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됨.
- 미국의 에너지관련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.
- 특히 동 법안에 의하여, CFIUS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미국 장기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함.
- 법안의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통해 법제화될 전망이다.

□ 시사점

- 미국 CFIUS의 이번 에너지 부문 규제강화조치는 향후 국내 주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&A 규제 법안으로서 참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(Global Power Report, 2007.7.5)

2.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 측 지선 '08년 건설 개시 예정

□ 개요

- 7월 9일,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 측 지선 건설이 '08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함.

□ 세부내용

-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 측 지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.
 - 중국이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 측 지선 건설자금을 최초로 지불한 날로부터 러시아는 208일 이내에 건설계획을 완성한다는 계약을 체결함.



- 중국 측 지선에 대한 자금조달 책임이 있는 중국 측이 최초로 자금을 지불하게 되는 시기는 '07년 7월이므로 건설개시는 '08년에 이루어지게 됨.
- 동시베리아 송유관은 2단계에 걸쳐 완공될 예정임.
 - 1단계는 동시베리아의 스코보로디노까지의 건설과 중국 측 지선 건설, 페레보즈나야 석유 수출항 건설을 포함함.
 - 1단계 공사를 통해 동시베리아 송유관은 연간 3천만 톤(약 60만 b/d)을 수송할 계획이며 건설 완료시기는 '08년 말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됨.
 - 1단계 공사의 중국 측 지선을 통해 공급될 원유량은 연간 1천5백만 톤이 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철로를 통해 태평양 연안으로 운반될 계획임.
 - 2단계는 스코보로디노~페레보즈나야 항까지의 수송관 연장을 포함하고 있으며, 2단계 완료 후에는 연간 8천만 톤까지 수송능력이 확대됨.
 -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며,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'08년 경에 구체적인 안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함.
- 또한 러시아 산업에너지장관은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수송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 유전에 대한 경매 및 신규 투자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언급함.

□ 시사점

- 러시아는 1단계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중국 시장 및 태평양 지역으로 각각 절반 분량의 원유를 수출함으로써 원유수출 성공여부를 타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태 지역으로의 러시아 원유 수출 여부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'08년 말 경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(Interfax, 2007.7.10)



2.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7월호

□ 개요

-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7월 10일 발표하였음.
- 세계 석유수급 전망
 -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'07년 및 '08년 세계석유소비는 각각 전년대비 130만 b/d과 150만 b/d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- '07년 증가분 중 미국 및 중국의 수요 증가가 각각 20만 b/d, 50만 b/d를 차지함.

세계 석유수급 전망

(단위: 백만b/d)

구분	2006	2007	2008
수요(A)	84.6	85.9	87.4
OPEC 공급(B)*	35.3	35.2	36.7
비OPEC 공급(C)	49.2	49.9	50.8
공급(B+C)	84.5	85.1	87.5

* : OPEC 공급은 앙골라 포함, OPEC 12개국 공급량

- OPEC의 2/4분기 원유생산량은 3,030만 b/d로, 이는 1/4분기보다 30만 b/d 증가한 것이나 지난 동기대비 80만 b/d 감소한 것임.
 - 76만 b/d 규모의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, 가동이 중단되었던 Forcados 터미널에서 35만 b/d이 곧 생산 재개될 예정임.
- 원유 비축량의 정상수준 유지를 위해 OPEC에서 적어도 1백만 b/d가 증산되어야 할 것임. 그렇지 않을 경우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것임.
- 비OPEC 국가의 석유 생산은 '07년에 약 60만 b/d, '08년 1백만 b/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'07년 증가분 중 2/3이 구소련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며, 북해지역의 생산은 7-8월 정비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5만 b/d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.



○ 유가 전망

- 지난 2개월간 상승세였던 세계 유가는 8월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 '07년과 '08년 국제 평균유가는(WTI 기준) 각각 \$65.56/bbl과 \$66.92/bbl로 전망됨.

○ 미국 석유수급 전망

- '07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.4% 증가한 2,090만 b/d를 기록할 것이며, '08년에는 1.2% 증가하여 2,10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여름 휘발유 소비는 작년보다 1.2% 증가하여 950만 b/d를 기록할 것임.
-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되는 10월까지의 멕시코 만 생산 감소분 13백만 배럴을 감안할 경우, 미국의 '07년 석유 생산은 전년대비 0.6% 증가한 520만 b/d가 될 전망이다.
- Atlantis 심해 및 Thunderhorse 플랫폼에서 원유 생산이 개시되는 '08년에는 원유 생산량이 53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○ 천연가스 수급 전망

- '07년 2/4분기 천연가스 소비는 예년보다 추운날씨로 인해 1/4분기보다 2.9% 증가하였음. '07년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4.3% 증가하여 약 6,442억 m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'08년에는 1.1%로 소폭 상승하여 약 6,515억 m³을 기록할 전망이다.
- 멕시코 만 천연가스 생산량은 '07년 4.9% 감소할 전망이다. 그러나 '08년에는 8.1% 증가하고, 육상 가스전에서의 생산량 역시 1.1%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'08년 미국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2.2% 상승한 5,374억 m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- '07년 2/4분기 LNG 수입은 하루 평균 8,400만 m³를 기록, '07년 총 LNG 수입량은 전년 보다 44% 증가한 약 237.9억 m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○ 천연가스 가격 전망

- '07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3/4분기 \$6.93/MMBtu, 4/4분기



\$7.95/MMBtu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, 올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'08년 1/4분기에 최고에 달할 것임.

- '07년 및 '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각각 \$7.15/MMBtu, \$7.59/MMBtu가 될 것으로 예측됨.

○ 전력 수급 전망

- '07년 총 전력 사용량은 전년 대비 1.8% 증가한 3,888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'08년에도 1.4% 상승하여 3,944TWh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올 상반기 소매 전력 사용량은 전년 대비 2.4% 가량 증가하겠지만, 3/4분기에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9%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전력가격 전망

- 가정용 전력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2.2%를 기록하였으며, '07년 전력가격은 전년대비 3.0% 상승한 10.71센트/kWh, '08년에는 2.5% 상승하여 10.98센트/kWh를 기록할 전망이다.

○ 석탄수급 전망

- 전력 부문의 석탄 소비는 '07년에 0.7% 증가하여 약 10.32억 톤이 될 것이며, '08년에는 '07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10.33억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됨.
- '07년 석탄 생산은 전년대비 2.9% 감소한 약 11.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'08년에는 1.2%가 하락한 약 10.9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 전체 석탄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부지역 석탄 생산은 '07년과 '08년에 각각 2.5%와 0.8%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